

## 천도교와 나의 시집이야기

### 林承子 임승자

- 1945년 생
- 화성시 반월면 팔곡리 출생
- 1965년 윤종건과 결혼  
윤종건(尹鍾健) : 1940년생. 수원 장안구 장안동  
수원교구에서 출생. 일제 시대부터 활동한 천  
도교 수원교구장 윤교총의 아들.
- 현 천도교 수원권선교구장



水原



여성으로서 천도교의 한 교구장이 된 점이라든지……. 게다가 몇 년 전부터 수원 시에서 각기 분야에 주목할 만한 지역인물들에 대한 근현대사 증언을 받은 자료 집을 통해서보면 선생님의 집안이 초기 수원 천도교에서 크게 활약하던 집안이라서 더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저번 근현대사 자료집을 만들 때 제가 전 권선교구장을 역임하셨던 이위경 선생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선생님의 아버님(윤교총)을 비롯하여 집안 어른들 얘기를 얼핏 듣기도 했구요, 제가 인터뷰한 분은 아니지만, 선생님(윤종건)의 형님이신 윤한흠 선생님의 증언 내용을 보아도<sup>1)</sup> 이 지역 초기 천도교 유입에, 발전에, 선생님 집안 그러니깐, 운씨 일가가 크게 일임을 했던 거 같아요.

선생님(임승자)께 듣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러한 수원의 초기 천도교에서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해온 집안에 시집와서 천도교에 입교하시고, 지금의 권선교구장에 이르게 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동학 같은 경우는 그 사상 자체가 민족 사상으로, 여성이라든가, 어린이 등 그 동안 전통사회에서 소외 받고 있던 계층에 눈을 돌리는 만민평등에 근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동학의 사상이 한말에 끼친 영향은 서구 근대 사상의 영향보다도 더 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특히 여성, 부녀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다방면에서 그 활약이 돋보이는 점에서도, 또한 현재 교구장을 여성이 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또한 증언 대상자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두 분께 주로 듣고 싶은 얘기는 집안과 천도교의 관한 얘기, 그러니깐, 예전에 들은 얘기도 좋구요, 시집오셔서 시집 어른들에게 들었던 얘기도 좋구요.<sup>2)</sup>

임승자 : 나 시집오던 해에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나는 잘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아버님이 13살부터 입도하셨대요.

**윤교총 선생님께서 13살에 입교하셨다고요? 동학으로?**

임승자 : 그래서 그 고향 동네에서, 일본……. 그때는 일제시대라서 일본 사람들이 탄압을 하도 심하게 해서 거기서 쫓겨났대요. 동네에서……. 그래도 계속 하셨나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천도교를 계속 하셨어요.

1) 『수원 근·현대사 증언 자료집 II』(2002, 수원시)에 이위경, 윤한흠의 증언자료가 있다.

2) 천도교 권선교구장인 임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계획했으나, 그의 남편인 윤종건씨와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수원 지역의 초기 천도교와 관계된 괄목할만한 활동을 벌여온 임승자씨의 시집이 이야기는 그의 남편이 임승자씨가 시집오기 전의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어머님이요?

임승자 : 네, 시어머님이 아주 열심이셨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생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저는 배운 게 없어요. 도(道)도 안 깊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랑 약속하기를, 우리 친정이 본래 예수교를 믿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시집을 왔으니깐, 제가 잘은 못하지만은 어머니 뒤를 이어 그 도를 받겠습니다. 내 자손은 모르지만은 제 평생은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잘은 못하지만, 계속 했어요. 교회에 계속 나왔지요. 그런데 그 이위경씨<sup>3)</sup>가 제암리 일로 해 가지고 여기서 좀 뜻이 안 맞아 가지고 그 분이 이제 광주교군가?

예.

임승자 : 그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암리 쪽 분들도 오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거기 제암리 쪽 관련된 거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은 남양교구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나씨 일가, 나천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한 거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인터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

듯이, 수원 지역의 초기 천도교에 관련해서 윤씨 일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더욱이 수원교구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윤교총 교구장이 마지막까지 교구 교회, 그 집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셨으니깐, 의미가 깊습니다.



윤종건

윤종건 : 근데 저희 아버지가 천도교의 교구장도 하시고, 6·25 사변 때고 언제고 거기를 한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천도교에서 중요시하는 청수상(淸水床)을 계속 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교구가 지금 세류동으로 이사할 때 거기다가 제가 직접 갖다 줬어요. 청수상뿐만 아니라, 천도교와 관계된 책이니 뭐니 쪽 아버지가 가지고

3) 전 천도교 수원권선교구장이었으며,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Ⅱ』에 증언 채록이 되어 있다. 수원 지역의 초기 천도교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이다.

계시던 것을 교구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거 뭐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봐야……. 여러 사람이 봐야지. 근데 지금 그 책들, 문서들이 거의 다 분실이 됐어요. 없어요. 전부 다 뭐 가져 가고 싶으니깐, 가져 갔겠지. 근데 나는 그래도 아버지 유품이니깐, 내가 보관을 할까하다가 내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꺼번에 다 기증을 하면은 여러분이 오시면서 보실 거다 해서 했는데…….

임승자 : 리어카로 한 가득 실어서 갖다 줬어요.

윤종건 : 그 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6·25 피난 갈 당시에 1·4 후퇴 때에 그 당시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말이에요, 우리 집에, 교구집에 우리가 교구에 살았으니깐, 교구집에 향나무가 있어요. 향나무가, 그 옆에 하수구가 있고 했는데, 향나무 옆을 파고 거기다가 비닐에 싸 가지고 일부 묻고, 또 책 남으니깐, 부엌에 옛날에는 불을 때서 했지요? 그래서 부엌 구석에 나무 쌓는 데, 거기다가 파서 묻어서 감추고, 또 태극기 같은 거는 우리 사랑방에 늘 노인들이 계시니깐, 매일 불 때는 곳이니깐, 이렇게 불을 때게 되면 연기가 나서 돌아나가는 굴뚝 옆에다 구덩이를 파 가지고 태극기를 거기다가 감췄어요. 피난 나갔다가 와 가지고, 수복한 다음에 그 태극기를 꺼내고선 수복군인들에게 전해주고……. 아마 그런 걸로 알아요. 그리고 나한테 저 사람이(임 승자) 시집 와 가지고 그래도 뜻이 그래 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해요.

임승자 선생님 시집오기 전에 친정 얘기라든가,  
출생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임승자 : 제 역사를 들을 게 없는데, 하하하(웃음). 별로 내세울만한 게 없는데…….

윤종건 : 내세울 건 없어요. 예, 이 사람은 화성군 반월면 팔곡리에서 출생해서 거기서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와서 있다가 나를 만나서 결혼을 했지요. 근데, 시집오기 전 예수교 나갈 적에는 아주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 해서 성가대에서 활동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시집와서는 이 시집의 도를 쫓겠다고 해 가지고는 열심히 뭐 아주 열심히……. 나는 뭐 안 믿고… 하하하(웃음). 지금도 천도교 나가고 하는 거는 주

로 집사람이 나가요. 그게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어머니하고 약속한 게 있어 가지고, 그걸 꼭 잘 지킬려구 그러다 보니깐, 지금은 이제 아마 천도교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교구장일 거예요.

임승자: 하하하(웃음). 근데 그게 뭐 제가 능력이 좋아서, 뭐 배운 게 많아서, 도가 깊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위경씨가 가면서 교구에 죄다 노인들만 계시니깐, 막상 교구장을 세우려니깐, 제암리 가서 교구장을 새로 세우려고 하니깐,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저를 지목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난 아홉 살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선생님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임승자: 1945년도요. 화성군에서 났지요. 아홉 살에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난 공부를 배운 게 없어요. 학교를 못 댕겼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못한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이제 여러 어른들께서 “그럼 부모님 도를 내 버릴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약속도 있고해서……. 아무튼 전 아는 게 없어요. 별로. 하하하(웃음). 시천주(侍天主)만 열심히 외우고, 주문만 그저 열심히 외우는 거지 뭐…….

남편 되시는 윤종건 선생님은 출생년도가 어떻게 되세요?

윤종건: 40년 생이에요.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49번지가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태어났을 때, 수원교구집에서 출생하신 건가요?

윤종건: 그때는 그냥 수원교구로……. 지금처럼 권선교구, 수원교구 이렇게 나뉘진 게 아니고, 근데 그 당시는 간판이 천도교 수원교구 그거 하나지. 뭐.

나중에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들어오고 신파, 구파로 나뉘지면서 신파, 구파로 갈라진 거지요?

윤종건 : 그렇지요. 신파는 주로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때 월남하신 신파쪽 신도들 중에 지금도 생전에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자 : 네, 그러니깐, 신파는 3세 교조만을, 구파들은 4세 교조까지 모시고 있었어요. 춘암상사(박인호:4세 교조)가 의암성사(손병희:3세 교조)의 법을 전수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신파, 구파를 떠나서 다 같은 천도교인데……. 거기(신파)가 수원교구로 되어있고, 여기(구파)는 권선교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있냐면은, 여기서 그걸을 못 찾은 거지. 말하자면, 그래 그거를 천도교 중앙총부에다가 얘기도 했어요. 거기를 장안교구로 하고, 여기를 권선교구로 하자 그런데, 그게 뜻이 되지 않아 가지고, 여전히 그렇지 뭐…….

혹시 예전에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소장하고 계시던 사진들이나, 혹은 천도교 주요 인사들, 그밖에 일제시대 때 풍경이 남아있는 사진, 아버님, 어머님 모습의 사진들이 있나요?

윤종건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보니깐, 집이나 뭐, 사진 한 장만이 필요해.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에 가지고 계시던 사진을 딴 사람들에게 자꾸 돌리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소장하고 계시던 사진을 내가 다 소각을 했어요.

임승자 : 얼마 전에……. 애들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한 장씩만 남아있어요.

윤종건 : 그렇지, 두 어른 사진 한 장씩만 있지. 그리고 그때 나 역시 그동안 내가 살면서 어디 관광 갔거나, 집안 행사거나 찍었던 사진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다 정리하려고 다 정리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니 엄마나 아버지가 죽으면은, 화장을 해서 뿌려라.” 그랬어요. 나는 시신도 병원에 다 기증을 하려고 그랬거든. 그게 뭐 자꾸 말리고 해서 못했는데, 그래서 옛날 사진, 뭐 요새 사진 다 없어요. 하하하(웃음).

윤교총 선생님 사진도 하나도 없나요?

윤종건 : 하나 있어요. 한 장. 그것도 이제…….

임승자 : 어머님, 아버님 사진은 있어요. 그래 우리는 나갈 때도 꼭 어머님, 아

버님한테 꼭 신고를 올리고 나가요.

지금도요?

임승자 : 네, 지금도요.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신고 올리고, 갔다와서도 신고 올리고……. 뭐 그냥 잘은 못하지만……. 저는 뭐 부모님 하시던 도니깐, 그냥 제가 청수 모시고, 아홉시에 모시고, 새벽 다섯시에 모시고…….

윤종건 : 종교 생활한다는 게요, 부지런해야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저녁에 자기전에 꼭 청수 올려야 하고…….

임승자 : 아침에는 새벽 다섯시에 해야 하고, 저녁엔 아홉시에 해요.

그러면 두 분의 결혼에 관련된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결혼은 지역마다, 그러니깐, 마을마다 조금씩 다른 풍속들이 나타나거든요. 두 분도 결혼 당시에 결혼과 관련 돼서 기억에 남는 일이라던가,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윤종건 : 결혼 얘기는 내가 할게요. 지금은……. 북문 옆에 삼일예식장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없고, 그때 삼일예식장이 지금 삼일상업고등학교 하는 재단하고 같은 걸 거예요. 아마.

그럼 신식 결혼식을 올리신 거예요?

윤종건 : 네, 신식하고, 신식 예식하고 난 다음에 천도교 예식으로다가, 구식으로다가, 또 했지요. 한 날 같이 했지요. 그래서 예식 시간이 길었죠.



1965년 결혼식

천도교식 예식이 따로 있었나요?

윤종건 : 청수를 모셔놓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신식예식장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윤종건 : 네, 신식 예식하고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뒤에 이어서 했어요.

김세영 : 결혼하신 게 몇 년도인가요?

임승자 : 65년도요.

윤종건 : 65년도요? 64년도가 아니고.

임승자 : 하하하(웃음). 65년도예요. 그 해에 시집은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김세영 : 그럼, 신랑, 신부 나이가 각각 얼마였어요?

윤종건 : 나는 스물여섯.

임승자 : 나는 스물하나. 하하하(웃음).

윤종건 : 64년도 아닌가요?

임승자 : 65년도가 맞아요. 65년도에 결혼해서 오니까, 오던 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니깐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저보고 아버지 복이 없다고 했을 거예요. 제가 아홉살에 아버지가 작고하셨거든요, 친정 아버지요. 시아버지도 내가 시집오니까 작고 하셨잖아.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안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도가 깊으세요. 우리 아버님도 물론 깊지만, 두 분 다 도가 엄청 깊으신 분들이예요. 도 받으실 때 뭐 끼니를 굶어가면서 정성을 드리셔 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그건 뭐 다 우리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니깐, 우리 어머니 역시 도가 한창 깊어서 가지고 돌아가셔도요, 돌아가셨을 때 보면 광채가, 화장해 놓은 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났고, 이 살이 그냥 광채가 났어요. 돌아 가셨는데도.

윤종건 : 하루 앓으셨는데,

임승자 : 우리 어머니는 하루 편찮고 돌아 가셨어요.

윤종건 : 내가 서울에 있었는데, 원체 술을 좋아해서……. 돌아와서 뵈었는데, 정말 이뻐요. 돌아가셨는데도.

시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임승자 : 김자, 금자, 순자 김금순이에요.





김금순 | 시어머니

그럼 몇 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임승자 : 여든 둘예요.

그게 몇 년도예요?

임승자 : 그게 몇 년도인가, 잘 모르겠네.

윤종건 : 그때가 애들이 몇 학년이었나? 애들이  
중학교 때가 아닌가?

임승자 : 애들이 고등학교 때인가? 애들이 컸어  
요. 큰 애비가 수원고등학교 2학년 때니  
간, 3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하하하(웃  
음). 잘 기억이 안 나.

윤종건 : 애들은 확실히 알려는지 몰라.

두 분 결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결혼에 있어서요, 천도교는 교  
인끼리…….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성공회는 성공회 교인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데, 아까 임승자 선생님은 결혼 전에 친정에서 예수교를 믿었다고  
했는데…….

임승자 : 천도교는 그런 거 없어요.

또 성공회는 교회에서 결혼하는 일이 일반적이는데, 그리고 성공회는 뭐 외국에서  
유입된 종교니깐, 결혼식은 서양식의 신식결혼식을 올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  
만, 천도교인들이 예식장에서 신식결혼식을 웨딩드레스 같은 거 입고, 그 다음에  
청수 모셔 놓고…….

임승자 : 아니, 그냥 웨딩드레스 입은 상태에서 그냥 청수 모시고 그렇게 예식  
을 한 거예요.

그렇게 천도교식의 의식을 하는 거군요. 그럼 당시에 대부분의 천도교인들이 그  
런 식의 결혼을 하나요?

임승자 : 아니요, 뭐 대부분의 천도교인들은 예식장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총부  
(천도교 중앙총부)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때…….

윤종건 : 그게 왜 그러냐하면, 아버지 친구 분이 천도교인이신데, 그 장기천씨



결혼식장에서 가족친지들과 기념촬영

라고 하시는 분이, 한문 학자예요. 장기천씨가. 이 양반이 주례를 보시고, 그 양반이 주례시를 다 하신 다음에 그 양반이 천도교의 청수를 모셔놓고 거기에 대한 천도교의 예를 갖춘 거예요.

그러면은, 신혼 여행은 어떻게 하셨어요?

윤중건 : 안 갔어요. 신혼여행이라는 게 그 당시 별로 없었어요.

임승자 : 북문 앞이 장안동인가? 거기서 예식하고 교동으로 왔지요. 하하하(웃음).

45년도에 출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출가하시기 전에 가족관계는 어떠했나요?

임승자 : 네, 언니 하나 있고요, 오빠 하나 있고, 엄마, 그렇게 계셨고……. 그 전에 우리 친정 할머니가 그러니깐, 저기예요. 아홉 살에 민며느리로 오셨어요. 천도교하시다가, 다 가족이 몰살을 당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아홉 살에 민며느리로 오셨대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보다 늦게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신 이후로 수원으로 이사 왔어요.

수원으로 이사 오셨을 때가 몇 살이셨나요?

임승자 : 열두 살 때요. 아마.

그러면 그 이후로는 수원에 계속 사셨나요?

임승자 : 네.

그러면은, 천도교에 입교하신 건 시집오셔서고, 친정은?

임승자 : 그렇지요, 지금도 친정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요, 매산교회 다니세요.

출가 전에는 개신교였다가 천도교는 시집오면서?

임승자 : 네, 시집오면서 입교를 했는데, 입교를 하면서도 천도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정성이 지극하시고, 이게 남의 말이라는 거는 요만큼도 안 하세요, 남 흥분 줄도 모르시고, 거짓말도 모르시고, 뭐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저기 하셔서 가지고 '아, 내가 어머니 뒤를 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천도교를 믿게 된 거지요.

그럼 열두 살에 여기 수원에 오셔서 가지고 학교 같은 데는?

임승자 : 학교는 못 갔어요.

그러면은 수원 처음 왔을 때요, 수원의 첫 인상이라든가, 관련되어 기억나는 건물이라든가, 거리라든가, 풍속이라든가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임승자 : 뭐 별달리 생각나는 게 없네요.



약혼기념사진 | 1964. 12. 20

그러면은, 두 분이 결혼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윤종건 : 아하, 내 친구의 동생이에요.  
학교 친구의 동생이었어요.

그럼, 오빠 친구 분하고 연애하신 거예요?  
연애 결혼이시죠?

임승자 : 하하하(웃음). 뭐 연애겠지요.

시어머님은 그러면은 시집 오셔서 천도교에  
입교하신 건가요?

윤교충 선생님과 결혼하시면서?

윤종건 : 그렇지요.

그러면 어머니가 윤교총 선생님께 시집오실 때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윤종건 : 몰라요, 나는.

임승자 : 하하하(웃음). 그런 건 계산을 안 해 봐서 몰라요.

시집 오서 가지고 천도교에 입교하신 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결혼과 동시에 개종 한다는 게, 뭐 그 당시에는 그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임승자 : 뭐, 자연스럽게 했어요. 망설임 없이. 교구에서 우리 어머니가 한 4개월을 집에 누워 계셔서 제가 뒤 받아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천도교는 영부라는 게 있어요.

영부라는 게 뭐예요?

임승자 : 영부라는 게 있어요. 천도교에는. 영부라는 게 있어서 교인 몇 분이 오서 가지고, 예수교로 치면은 신방처럼 천도교 교인들이 집에 오서 영부라는 걸 췌서 잡았는데, 그 영부를 잡숫고 그 날 저녁으로 일어나 앉아서 당신이 떠드셨어요. 그래서 내 천도교 입교는 했지만, 그때까진 잘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영부 잡수시고 일어나시고 하시는 거 보고 그 이후로 십 년을 더 살다가 돌아 가셨거든요. 그래 내가 '아, 우리 어머니 뒤를 이어야겠구나.' 그리고서는 그 후로 계속 청수 모시고 했어요.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가서요. 화성에서 열두 살에 여기 오셔서 가사, 집안 일을 하셨어요? 수원 어느 곳으로 이사오셨나요?

임승자 : 네. 세류초등학교 앞에요.

네. 세류초등학교요. 스물 여섯 살이면은 그때 선생님(윤종건)은 어려서 학교 어떻게 다니셨어요?

윤종건 : 난 참 복잡한데, 하하하(웃음). 학교는 고등학교 밖에 안 나왔어요.

어떻게 수원에서 나오셨어요?

윤종건 : 네. 삼일상고 나왔어요.



삼일상고 재학시절 | 앞줄 맨 오른쪽 윤종건

그러면 초등학교는?

윤종건 : 초등학교를, 그 당시에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려면 일본 정치 때 미리 그 지금으로 말하면 ‘ㄱ, ㄴ, ㄷ, 가 가 거 거……’ 이런 거, 근데 우리집 옆에가 일본인 소교장이라고 일본 정치 때 그 집이 우리 집 옆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집 식구들은 학교 갈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임승자 : 못 들어 간대요. 찢라 내서…….

윤종건 : 네, 이 동학교와 천도교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집에서 독학을 하다가 학교를 중학교 때부터 갔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제도권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으신 거군요.

윤종건 : 예.

윤한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학교, 신풍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화성학원에, 아버님이신 유교충 선생님이 화성학원으로 보냈다고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윤한흠 선생님하고 같이 사시지 않으셨나요?

윤종건 : 그 사람은 일본에 가 있다가 여기서 해방이 되고, 여기 왔다가……. 해방돼서 와 가지고선 군대를 갔으니깐……. 군대 갔다 와서 우리집에서 아버지가 장가 들어서 우리 형수가 우정자예요. 형수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서 내 보냈지. 아버지, 어머니하고 한 데 못 살아본 사람이예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깐, 뭐라구 해야 하나, 생각이 틀리면은, 자식 이기는 부모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의 세월로 봐서는 자식이면, 무척 부모에게 효와 존경으로 해야 할 때였는데, 윤한흠씨는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이 많았지요.

임승자 : 어려서부터 생계를 잇다시피 했으니깐, 우리 아버님은 도를 하셨기 때문에 어디 가서 돈 벌어오는 분이 아니라, 도만 닦으신 분이래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가신 분이지요.

윤종건 : 뭐, 난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의 행동을, 조금은 기억에 나는데, 우리가 그 교구에서, 그 집에서 살았으니깐…….

선생님 태어나실 때부터 사신 곳이지요?

윤종건 : 그렇지요. 나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교회에만 있었으니깐, 그러면은 일본 고등계 형사들이 아침이면 벌써 “운상” 하면서 찾아오고 그래서 교구의 마루끄트머리에 앉아서 도리구찌에, 가죽 채찍 들고…….

도리구찌가…….

윤종건 : 빵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고 와서, 그게 일과예요. 아침이면 와서 감시하는 거지요. 아침부터 감시하고 그게 그네들의 임무였어요.

임승자 : 그래서 공문, 중앙총부에서 내려온 공문 같은 거 안 보여주면 가둬놓고 때리고 그랬대요. 우리 아버님께서 일본놈들한테 매 많이 맞으셨대요.

유종건 : 그러니깐, 우리 아버지는 학교라면 아주 싫어해요. 가면 일본말 배우고, 일본 선생도 있고 이러니깐, 그래서 집에서 그냥 한문 독학이나 하라고…….

그러면 어렸을 때 아버님께 한문을 배우셨어요?

윤종건 : 그렇지요. 그지 우리 애들 줬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문 배울 때 쓰던 나무로 만든 아주 작은 책상, 책 한 권 피면, 딱 맞는 정도의 크기예요. 책상이 크면 안 된다는 거야. 책상이 크면 팔도 괴고 턱도 바치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그 책상은,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팔을 괴면 그 책상이 자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 깜짝 놀라서 정신이 바짝 들지. 그렇게 정신 차리라는 거지. 어린 시절은 뭐 그런 식으로 보내고 6·25 사변 나고 1·4 후퇴하면서 떠났다가 수복을 해서 돌아오고 뭐 그러다보니까, 공부할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나이가 적은,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적은, 동생뻘 되는 사람들이 중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학교를 가려면은 뭘 미리 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학교에서 이런 수학책이다, 국어책이다, 뭐 이런 걸 가져다가 나 혼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중학교에 간 거예요.

그때 중학교에 가신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윤종건 : 그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보통 동급생들보다 많았지요? 얼마나 많았나요?

윤종건 : 그렇지요, 많았지요, 아마 그때 보통 열셋, 열넷이면 중학교 가는 나이 아니예요? 근데 내가 아마 스물세 살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스물세 살에 내가 군대를 갔거든.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갔지요. 가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전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가서 월반, 월반해 가지고 고등학교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간 시기는 보통 사람보다 아주 늦은 시기였겠지요.

그렇게 빨리 중학교 과정을 마치시고, 고등학교를 진학 후에는?

윤종건 : 그래 가지고선 내가 대학 가려고 할 때는 우리집 형편이 대학 등록금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군을 지원을 해 갔거든. 우리 부모님을 13살서부터 모시다시피 했거든.

임승자 :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진 거예요. 동생들부턴 부모님까지, 그러니 뭐 고생을 엄청 했지요.

윤종건 : 그런데, 윤한흠이는 그 당시에 우리집이, 뭐 어머니, 아버님이 이미 노인네들이니깐, 그저 쌀이나 한 다섯 말 사주면 그만이지. 그 이외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도 그 양반은 잘 살은 양반이에요. 그렇게 내 평생 부모를 모시고……. 여지껏,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했수로 다가 몇 년이나 하면, 38년이에요. 38년 동안에 제사에 한 번도 와 본 일이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윤한흠 선생님하고 어머니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윤한흠 선생님께는 누님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윤종건 : 네, 어머니가 각기 틀려요. 누님들 있지요. 두 분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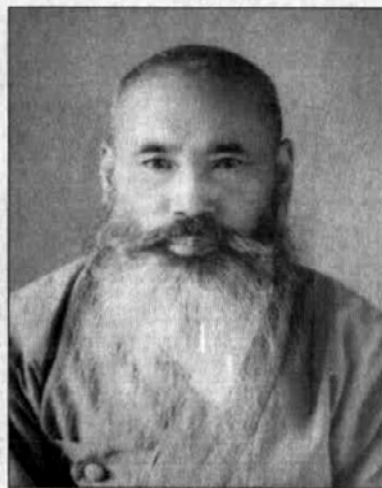
그러면 그쪽은 삼남매이고, 선생님은?

윤종건 : 넷이요.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위로 누님 한 분. 근데 지금 제사 때에는 윤한흠씨의 아들은 와요. 8월 추석하고, 설날, 이렇게 명절 때만 와요. 기제사 때는 안 오고…….

아버님 윤교총 선생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억나는 사건들이나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주시지요.

윤종건 : 우리 아버님은 거지가 바깥에 오면은요, 걸인이 오면, 우리 아버지는 거지라도 물떠서 세수를 시켜요. 아주 그냥 같이 겸상하고……. 그래서 생각나는 게, 옛날에, 어려운 시절엔 아버지 밥 한 그릇 정도 딱 퍼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늘 위에도 사람 없고, 하늘 아래도 사람 없으니, 그저 사람은 다 똑같다.” 그러시면서 다 같이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을 해야지, 사람을 걸 보고서 옷 잘 입었다고 잘 대하고 그러면 되겠냐구 그리 말씀하셨어요.

“사람 다 똑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 아버지 떠올리면은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일로 가슴 깊이 기억이 되요. 그 외는, 그리고 ‘흠은



윤교총 | 시아버지, 수원교구장 역임



거짓말 안한다.'고 하시고…….

선생님 어린 시절에 그러면은 수원 교구에서 스물 여섯에 장가 가실 때까지 계속 사셨어요? 그럼 그 교구집에서는 언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윤종건 : 아하, 그 집은 내가, 그 집은 교구 병의로 되어 있지요. 근데 거기에 팔린 땅을 살 능력이 없었어. 땅주인이 그 땅을 사라고 하는데, 사지 못하면 그 집을 헐게 되면은, 집값은 없는 거니깐,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샀어. 그 땅을 사고, 그 집 건물 값을 정해서 교회에게 준 거지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평동이나 어디 가서 교회다운 교회를 지어라 그러면서 돈을 준 건데, 지금 그때 내 말을 잘 들었으면, 굉장히 좋게 되었는데, 옛날 노인네들이라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지금 그때 내가 준 뿌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큰 발전 없이, 난 그렇게 봐요.

그럼 결혼 당시에는 교구집에 들어가서 사셨나요?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그 집에서 나오신 건가요?

윤종건 :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결혼하고 바로 나왔지. 그래서 그 해에 바로 돌아가셨지.

네, 이위경 선생님 말씀이 교구를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선생님의 아버님이라고 하셔서 여쭙 본 거예요.

윤종건 : 맞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온 거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깐, 어머니가 한 분 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깐,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애를 옆고서는 먼저 살던 교구집으로 꼭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깐,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안 되겠다. 도로 교구집에 돌아와서 살아야 겠다.' 그래서 교구집으로 다시 돌아왔지요.

그게 얼마만에 돌아오신 건가요?

윤종건 : 얼마 안 되었요.

그러면 교구집에서 신혼 생활을 계속 하신 거네요?

윤종건 : 아, 그럼요.

몇 년 동안 교구에서 사셨나요?

윤종건 : 거기서 신혼 생활 한 건 얼마 안 되요. 교구는 교구대로 없어졌으니깐, 나는 교구집을 사서 교구를 이사 보내고, 그렇게 살다가 나도 이제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지요.

그럼, 선생님은 언제, 몇 살에 입교하셨나요?

윤종건 : 나는 모르겠는데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윤종건 : 그렇지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성격으로 보나, 뭐로 보나, “천도교는 니가 좀 이렇게 해다오. 여러 형제가 있어도 너 하나밖에 이 천도교를 믿을 사람이 없다.” 하셨으니깐. 그리고 실제 지금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세요, 그 당시 수원교구 연혁을 보면 윤준흠, 윤영흠 등 일가 같은데……, 많은 활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관계이시죠?

윤종건 : 아, 네. 윤준흠씨는 제가 알지요. 윤준흠씨는 우리 아버지의 먼 조카뻘이 되요. 윤교환씨는 둘째 큰아버지이시고, 윤준흠씨는 우리 아버지의 조카뻘인데, 우리 아버님보다 나이가 위예요. 그런데, 나이가 더 위이니까, 우리 아버님이 윤준흠씨가 와도 “아이고, 조카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꼭 존대를 한다고 그러면 윤준흠씨가 아버지 보고 ‘아저씨 그동안 안녕히 계셨냐 구 꼭 이렇게 서로 존대를 했지. 반말을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더 위예요. 촌수가 조카면은 반말도 하고 그럴텐데 조카라도 나이가 많으니깐, 존대를 하셨지요. 아버지 형제가 육 형제예요. 육 형제 중에 다섯째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는 고모가 없어요. 아들만 여섯이었으니까, 그러니 여기서 나온 사촌지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버님, 그러니깐, 윤교총 선생님의 형제분들이 전부 동학, 천도교 활동을 하셨어요?

윤종건 : 안 했지요. 다 안하고, 우리 둘째 큰아버지의 아들 영흠이라고 하는 분이 믿었고, 우리 아버님, 윤준흠씨 뭐…….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럼 아버님 대를 넘어서 그 다음 대로는 선생님밖에 없는 거예요?

윤종건 : 없어요. 우리집에는……. 윤영흠씨도 하다가 그만 두고, 그 뒤로는 아

무도 없어요.

임승자 : 그 분들 집안에서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윤영흠, 이 분은 어떤 촌수지요?

윤종건 : 둘째 큰아버지의 첫째예요.

큰아버지는 안 하셨어요?

윤종건 :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선생님 아버님은 어떻게 천도교에 입교하시게 됐나요?

윤종건 :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집안에서는 제일 먼저 발을 들여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천도교에 입교하시면서 가족과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그때 쫓겨 나셨던 같아요. 집안에서…….

임승자 : 쫓겨났어요. 열두살에, 그 백학서, 비봉면 쌍학리에서 쫓겨나셨지.

원래 고향이 그쪽이셨어요?

윤종건 : 네, 화성군 비봉면 쌍학리. 지금은 화성시죠, 뭐,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우리집이 형식적으로는 다 때가 되고 하면은 신고도 올리고 청수도 올리고 다 했는데, 아마 우리 마누라가 다 입교는 시켜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손으로 믿는 사람이, 큰머느리가 조금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요.

임승자 : 하하하(웃음). 그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지. 큰머느리하고 청수를 모시니깐.

윤교총 선생님은 교회 일을 보시느라고 다른 직업을 가져 보신 적이 없나요?

윤종건 : 네,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른 나이에 생활을 다 맡아서 하시고…….

윤종건 : 그건 내가 말이에요. 신문 배달도 조·석간으로 해보고, 깨엿 장수도 해보고, 안 해 본 거 없는 사람이에요.

임승자 : 생활하시느라고, 안 해보신 게 없어요. 부모님 보시느라고…….

재임기간	교구장	임원 명단
67(1926)년 ~70(1929)년	강성의	박상호, <b>윤교충</b> , 김상근(종리사) : 연대미상
71(1930)년	홍종각 (대표의원)	곽은석(서무과), <b>윤교충</b> (경리과), 이종환, 김상근(감사원)
72(1931)년	<b>윤준흠</b> (종리원장)	신명옥, 배재무, 박상기, <b>윤영흠</b> , 송여수, 김종윤, 최영순, 최기연, 지영태, 이인수 이상 11명(종리사) 이종환(성도집), 박상호(신도집), 이연숙(지도집), 홍종각(감사원)
73(1932)년	홍종각 (종리원장)	최병익, 우종민(종리사), <b>윤준흠</b> (성도집), 박상호(경도집), 이연숙(신도집), 김상근(법도집), 정태봉(지도집), <b>윤교충</b> (감사원)
74(1933)년	한세교 (교장)	박상기, 김상근, 송영수, <b>윤영흠</b> , 김금산, 신영옥, 최기연, 우종민, 최병익, 이강년, 이연숙 이상 11명(전교사)
75(1934)년	<b>윤준흠</b> (교장)	이종환(현기원), <b>윤교충</b> (공선원), 이종우(금융원), 박상호(전제원), 홍종각(심계원), <b>윤교충</b> , 오영구(전교사) <b>윤교충</b> , 유진철, 오영구, 장재건, 장한수, 김종윤, 이종우, <b>윤영흠</b> , 김교필, 정태봉, 박상훈 이상 11명(주간)
77(1936)년	홍종각 (교장)	이강년(전제원), 배재무(감사원) : 포덕78(1937)년 임명
81(1940)년 ~89(1948)년	이종환	박상호(교회원), 이강년(교무원), 정태봉(경리원), 배재무(감사원), 최진성, 오영구, 박상기, 정태홍, 김봉희(전교사), <b>윤영흠</b> , 홍종각(순회교사) : 포덕82(1941)년 임명
90(1949)년	홍종각	
93(1952)년 ~104(1964)년	<b>윤교충</b>	
104(1964)년 ~106(1966)년	박상익	

※이 표는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 천도교의 항일독립운동」(김세영, 『상명사학』8·9집, 2003, 366쪽)에서 인용한 것으로, 수원 지역의 초기 천도교의 활동에서 윤씨 일가의 왕성한 활약이 주목된다.

윤종건 : 우리가 어려서도 공무원, 옛날에는 5급 공무원 10호봉에 합격을 했어요.

임승자 : 공무원으로 합격을 했대요, 학교를 다니면서…….

윤종건 :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내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럼 시험을 봐서 이십대 초반엔 공무원 생활을 하셨네요, 어디 공무원?

윤종건 : 재무부 소관, 지방, 경기도지요, 경기도 관재, 본사는 인천시 사동에 있었고, 내가 근무한 데는 여기 교동에, 지금 성공회 교회 맞은 편이에요.

지금 성공회 교동성당 맞은 편에요?

윤종건 : 네, 그것이 이제 몇 년도인가……, 세무서로 편입이 됐어요, 세무서에 국유재산 파는 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군대 다녀오셔서 다시?

윤종건 : 다시 복직을 해야 하는데, 근데 그걸 몰랐어요, 공무원 그 당시 이렇게 보니깐, 사령장을 대통령 대행해 가지고 재무부 장관이 주던데, 공무원증으로 사령장을 주던데, 그 복직하는 법을 몰라서 그냥 제대해 와서 개인회사에 취직을 했거든.

아버님 돌아가신 해가 언제지요, 65년도? 윤교총 선생님께서 몇 년 생이세요?

임승자 : 모르겠네, 하하하(웃음).

윤종건 : 족보를 다 큰아들에게 줘서 개가 다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네.

임승자 : 그러니깐, 여순 아홉에 돌아가셨으니까, 65년도에.

(이렇게 보면, 윤교총의 출생년도는 1896년이다.)

그러면은 어머니, 김금순, 이 분은 시집오시면서 천도교에 입교하신 건가요?

윤종건 :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모부가 천도교인이셨거든.

임승자 : 아니에요, 외할아버지께서 천도교인이셨대요.

윤종건 : 그래요, 아마 우리 아버지 만나기 전에 천도교에 입교하셨는지도 몰라.

임승자 :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천도교인이시라니깐.

윤종건 : 같은 천도교인이니깐, 내가 알기로는 추측인데요, 같은 천도교인인데, 아버지는 흠애비고, 여기는 과부고 그러니깐, 짝을 저준 게 아닌가. 젊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임승자 : 우리 어머니도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지, 뭐.

윤종건 : 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은 어디 분이세요?**

윤종건 : 여기 화성군, 아마 내가 알기로는 마도 분일 거예요. 마도, 시집 올 때는 친정이 마도고, 원래 친정은 봉담면 분천리였던 거 같아. 왜 그러냐면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내가 거기까지 간 기억이 있거든. 분천예요.

**어머님은 천도교에서 무슨 직을 맡는다거나, 주로…….**

임승자 : 우리 어머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오시면은 밥해서 모시고 아주 고생 많았어요.

윤종건 : 우리 아버님 뒷바라지만 하신 거지요. 지금이나 천도교인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내가 교구에서 살아서 아는데, 위에서 중앙 총부에서 높으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대접 다 해야 되요. 또 화성이고 어디 오산이고 일보러 오셨다가 늦으면 교구가 숙소예요. 그렇게 오시면은 대접을 다 해드려야지요. 그래 교구의 사랑방에는 베개가 있는 게 아니고 목침이라는 거, 나무로 잘라서 만든 게 쪽 쌓여 있지. 교구집이라고 하는 건 어땠겠어요? 대문이 늘 열려있는 집 아니예요. 아무나 와도 주무실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제일 편한 집 아니예요. 그러니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그 많은 사람들 다 밥을 다 해내고 했던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예요. 그러니깐, 우리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같으면은 머느리고 뭐고 다 도망가고 안 남았을 거야.

임승자 : 저도 시집 처음 와 가지고는 그 배추를 좌우지간 백 어 평에다가 배추



신도들과 함께 시어머니 김금순 | 앞줄 왼쪽

를 심으면, 그걸 하루 종일 뽑아요. 우리 어머니랑 같이 뽑아요. 그러면 그 배추를 하루 다듬어서 김장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밭에 있는 배추를 몽땅, 하루 종일 절구고……. 엇그저께도 교회 연성 마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에는 손님도 많아서, 저도 교구집으로 시집을 온 거니깐, 손님이 많아서 김치 많은 거를 그냥 하루 종일, 그때는 젊어서니깐, 바로 시집을 때니깐, 제가 힘이 좋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김장을 다하는 거야.

시어머니하고요?

임승자 : 같이 하시다가 우리 어머니는 또 얘기 봐야지. 제가 또 첫 아이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다 행귀서 다음날 다 씻어서 그걸 다 하는 거야. 그냥, 그래도 그때는 자고만 나면 가뿐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아픈 데가 많아요.

65년도에 결혼하셔서 교구집에서 신혼 생활하시다가…….

임승자 : 결혼해서 나가서 살다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니깐, 우리 어머니 혼자 계셔서 도로 왔지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두셨어요?

임승자 : 삼남매, 아들 둘에, 딸 하나. 쌍둥이 낳고, 다음에 딸 낳고.

그 분들도 다 천도교에 입교가 다 돼있나요?

임승자 : 다 돼있기는 한데, 우리 큰며느리만 청수를 모시고 있어요.

교구장 되시기 전에는 주로 활동을 어떻게 하셨나요?

임승자 : 활동 뭐, 교회 나가고 하는 거지요. 활동이랄 게 있나, 뭐, 없어요. 하하(웃음).

시집오셔서 시어머님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거 같은데요. 시어머님 평소의 모습이나 신앙생활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하여 말씀 좀 해주세요.

임승자 : 그러게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참 독실하게 그

렇게 하셨어요. 식사만 하시면 주문만 모시고, 앉으시면 주문만 모시고 그러셨지. 남 흉도 볼 줄 모르고 우리 어머니는, 이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 상에도 나타날 거예요. 얼마큼 도를 닦으셨는지, 우리 어머니님, 아버지님 사진



1986년 연성을 마치고 기념촬영 | 앞줄 왼쪽에서 7번째 시어머니

보시면은, 그 사진에서, 벌써 사진을 보면 딱 느껴질 거라고…….

윤종건 :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생전 남 흉볼 지도 모르시고 반찬투정도 해본 적이 없으시고……, 그래서 난 지금도 집사람이 해주면 해주는 대로 먹지, 반찬투정이라는 걸 몰라요. 옛날에도.

임승자 : 그래서 제가 젊고, 이제 시집왔으니깐, 모르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어머니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진짜 그냥 군자 중에 군자가 우리 어머니예요. 그렇게 사시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어요.

시어머님을 굉장히 존경하시는 거 같아요?

임승자 : 네, 아니 진짜 도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틀려서 도가 워낙 깊어서 가지고 누구한테 뭐 욕을 해본다든지, 누구 흉을 본다든지 절대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저 분(윤한흠)이 어머니 소리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같이 기르면서도 어머니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으셨다고 해 가지고 그 분(윤한흠) 딸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큰택에서 화흉예식장을 하셨잖아요? 그래 예식장을 하시면서 바쁘니깐, 제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가서 간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 우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동안에 어머니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으셨으니깐, 제가 가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머니 소



리를 하게 될런지도 모르니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윤종건 : 제 조카가 죽어서 내가, 당신 뭐시?

임승자 : 국화, 국화요.

윤종건 : 내가 그 국화를 가지고 갔어도, 말 한마디도 없어요. 참 그렇게 매정한 사람 세상에 없어요.

선생님도 시집오셔서 참 힘드셨겠어요? 교구에 사람들도 많이 드나들고…….

임승자 : 그때는 힘든 걸 몰랐어요. 그냥 젊었으니깐, 부모님이 하시는 거니깐, 힘든 거 모르고……. 지금도 교구에 가면은 여자들이 없어요. 교구에 가면.

그 당시엔 시집오셨을 때는 어떠셨는데요?

임승자 : 그때에도 여자는 별로 없었어요. 이정화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 74세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면 백세도



1980년 봉황각 연성을 마치고 | 앞줄 왼쪽에서부터 6번째 시어머니

넘으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보다 두 살 더 잡수셨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오시면은 도와주시는 거지, 식사하고 그럴 때 도와주시는 거지. 그 외에는 뭐…….

그밖에 교인으로는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시집오셔서 하는 분들이었을까요?

임승자 : 없었어요. 여자들은 안 나왔어요. 요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전에 믿으셨다고 요즘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좀 있어요.

각각 전쟁에 관련된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한국 사람에게 한국전쟁이라든가,

해방 전후에 관한 기억들이 생생한 분들이 많지만, 저마다 겪는 경험들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들려주세요.

임승자 : 전 해방 동이이고, 또 전쟁은 6살 때인가 그때 났어요. 그래서 어려서 기억은 잘 안나요. 많은 기억은 없지만, 그땐 아직 수원으로 이사오기 전이어서 화성 팔곡리에서 겪었는데, 6·25 당시엔 어렸으니깐, 어머니가 '이불 뒤집어쓰고 있어라.' 그러시면 이불 뒤집어쓰고 있고 그런 생각이 나고, 또 뽕뽕 둘러 다 폭격을 맞았는데, 우리집만 하나 남았어요. 그래 가지고 피난민들이 갔다오면서, 우리 어머니가 참 착해요. 그래서들 '이 집 아주머니 덕분에 이 집만 살아남았다.'고 다 그렇게 말 들하고 그랬어요.

**동네에 몇 호나 살았는데요?**

임승자 : 그 동네 글썄 몇 호가 살았는 지는 모르겠는데, 뽕 둘러 집이 있었는데, 우리집만 달랑 남고 다 폭격 맞았어요.

윤종건 : 그때 한국전쟁 때 우리집이 폭격 맞았어요. 우리 교구집. 우리가 들어와보니깐, 폭탄이 방에 와서 박혀서 터지는 않고…….

**선생님, 피난 가셨었어요?**

윤종건 : 네. 비봉으로 갔었어요.

**아버님 모시고, 가족들이 다 가셨어요?**

윤종건 : 네, 전쟁이 났으니깐, 다 피난들을 가니 우리도 가자고 해서.

**언제 6월 25일 당일에 가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윤종건 : 그렇지요. 며칠 지나서 갔지요.

**전쟁 났다고 하고 술렁술렁 하니깐 집 비워두고, 비봉으로 가셨다고요?**

임승자 : 그러니깐, 책 그런 거 다 묻어두고 갔대요.

윤종건 : 네, 그런데 갔다와보니깐, 폭격을 맞았는데, 참, 폭탄이 안 터진 거예요.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권선구 매산로 2가 59-8번지)이 선경공장 자리였는데, 이 일대가. 일제 때 일본인이 단추공장을 했기 때문에 선경공장 자리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교동교구집에서 여기 까지 와서…….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집이요?

윤종건 : 네, 여기가 공장이니깐, 톱니바퀴 돌아가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걸로 구루마를 만들었어요. 구루마를 만들어서 마당에다 놓고, 아버지가 힘이 좋아요. 그러니깐, 터지면은 안되잖아요, 터지면은 주의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깐 아버지가 구루마에다가 싼고 끌고서 행길에 갔다놓고 군부대에 연락을 한 거예요. 이거 폭탄 좀 가져가라고…….

그걸 빼서서요? 아버님이 체격이, 키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윤종건 : 키는 적어요. 일매타 한 육십 몇 될 거예요. 한 일미터 육십 될 거예요.

임승자 : 아주 쪼그마세요. 일미터 육십도 안 되실 거예요. 하하하(웃음).

체격이 외소한 편이신가요?

윤종건 : 신장은 외소한데, 아주 그냥 단단했지. 그런 분이 그걸 빼 가지고 군대에 신고해서 그렇게 군에서 가져 갔어요. 그래도 정성들인 집이라 그런지 폭탄이 터졌으면 없어질 집인데…….

그럼 피난 가셨다가 얼마만에 돌아오셨어요?

윤종건 : 수복이 되니깐 바로 왔지요.

임승자 : 나무고 마루고 뭐 다 뜯어다가 뺐는데, 사람들이, 청수상만 그대로 있는 거야. 나도 들은 얘기지만.

윤종건 : 아, 그래. 그것 참 희한해요.

임승자 : 그제 정성이 거기에 있는 데가 돼서 그 청수상이 교구에 그제 있어요.

윤종건 : 우리가 쪽 보관을 하고 있다가 교구 그리로(세류동) 이사가면서 아주 갔다 왔지요. 기증을 했지요.

그렇게 수복과 함께 돌아오시고, 전쟁 이후에 이북 쪽에서 들어온 천도교인도 당시 많았다고 들었는데…….

윤종건 : 어휴, 많았지요.

아버님이 이북 쪽에서 오신 천도교인들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말씀 해 주세요.

윤종건 : 아이구, 말하면 뭘 해요. 우리집에 몇 가구가 살았냐 하면요, 이북서

피난은 천도교인들, 뭐 아닌 사람들 해 가지고 사랑방에 살았지, 옆에 하나 살았지, 청수 모시던 마루방에 살았지, 뭐. 근데 양반들이 오서 가지고 생계가 막연하니깐, 행길에 나가서 뭐 그저 탄피도 줌고 유리도 줌고 뭐 그래 우리집이 하나의 고물상이 돼 가지고…….

아버님이 그렇게 다 받아주셨군요?

윤종건 : 그럼요. 그러니깐 거기서 몇 년씩 살다가 다들 각자 그래도 생계를 마련할만하니깐, 다들 떠났는데, 그러니까 자기네집도 아니고 나도 우리집도 아니고 교구집이고, 그 사람들도 교구요, 교인들이니까. 그저 돼지 기르는 사람도 있고, 병아리 기르는 사람도 있고, 그때는 니 꺼내 꺼가 없었어. 그래서 한 집에서 다 살았지.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각자 살만큼 되니까 독립들해서 다들 떠났지요.

지금 수원교구장으로 계신 분이 이북에서 오신 오영삼씨라고 알고있는데…….

윤종건 : 아닌데요.

임승자 : 맞아요, 그때 이북에서 오셨을 거예요.

윤종건 : 아니, 그때 우리집엔 안 오셨다고.

임승자 : 오영삼씨 당신이 보면 알지? 지금 팔십대 정도인데…….

윤종건 : 얼굴보면 알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신파로 수원교구로……. 당시에 분명히 교구집에 윤교총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이후에 수원교구가 신파 쪽으로 가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임승자 : 잘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때 월남해서, 아마 오영삼씨도 그때 오셨을텐데, 그런 거는 잘 몰라요.

윤종건 : 거긴 내가 살고 있었는데, 우리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계 남의 집이 아니야. 그래 생활하는 게 뭐 누구 눈치보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건 다 공동의 교구이고, 교구집이니깐. 그러니깐, 교구집이니깐, 천도교인이라면 아무나 들어와서 뭐 한 방에서 칸을 나눠 막아 가지고, 갈라서 그저 석유 곤로 하나만 들여놓으면 여기서 끓여 먹고 저기서 끓여 먹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고물도 들여 쌓아놓으면, 이렇게 쌓으면 이 사람 꺼, 저렇게 쌓으면 저 사람 꺼, 뭐.

그 당시 교구집에 사시는 동안 내내는 아버님께서 수원교구 교구장으로 계셨던 건가요?

윤종건 : 그렇지요.

65년도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렇게 하셨고, 혹시 아버님 다음에는 누가 하셨는지 아시나요?

윤종건 : 잘 모르겠는데, 정리보던 그 분이 아마도…….

임승자 : 이강년씨가 교구장 하셨어요.<sup>4)</sup>

윤종건 :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정리본 걸로 아는데, 그 다음에는 아마 그 분이 교구장을 했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했을 텐데, 그 당시에 교구장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요.

임승자 : 우리 아버님이 열세 살에 나오셨어도, 독학을 하셔 가지고, 한문학자가 못 따라 왔대요. 그러니까, 아들도 '학교 갈 것 없다', 일본 놈이 자꾸 자르니깐, '그냥 독학으로 해라.' 그러고 한문을 배우라고 그러신 거지.

당시 선생님이 자라실 때, 아버님이 가르치시고 할 때 여자형제들도 함께 했나요?

윤종건 :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한문을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를 내서 읽잖아. 생선 장사가 지나가다가도 '아, 이기가 벌써 글 읽는 소리가 나는 걸 보니깐, 몇 시로구나.' 할 정도로…….

임승자 : 원래 우리 아버님이 엄하셨대요.

윤종건 : 아, 난 군대 갔다와서도요, 아버지가 하도 무서워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못 앉았어요. 딱 무릎 꿇어야 되요. 엄한 정도가 아니예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예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쳐다보면 무서워서 제대로 아버지 눈을 못 봐. 빨려 들어가.

임승자 : 하하하(웃음). 저 사진 보시면은 그렇게 빨려 들어간다고요.

4) 윤교총의 뒤를 이어 교구장이 된 사람은 박상익이다. 이강년은 박상익(1964년~1966년 재임)의 뒤를 이어 1967년에 교구장이 된다. : 앞의 190쪽 표 참고

선생님 어려서 아버님한테 한문 배우실 때 혼자만 하셨어요, 동네 애들 불러서 함께 한다거나 훈장님처럼?

윤중건 : 아니요. 저 혼자 했어요.

선생님 해방 때 생각나세요?

윤중건 : 네, 생각나지요. 해방이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요. 세류초등학교로부터 소방서 쪽으로 나가는 큰 길이 있지요? 여기가 빨간 황토 흙이요. 언덕인데, 그 흙속에 장사밥이라고 쫄깃쫄깃한 게 있는데, 일본 사람들도 그걸 캐먹었어요. 캐먹고, 세류천이라고 하는 냇가 있지요, 그 냇갈로다 말을 가지고서 일본 사람들이 가잖아요. 피난을 가자면은 그리로다 말을 끌고 갔는데, 일본 사람도 여기서 전쟁에 패해서 쫓겨 갈 적에는요, 아주 비참했어요.

선생님, 해방 때는 어렸을 텐데, 그게 다 기억이 나요?

윤중건 : 예, 그게 다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 놈 시절에도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국어 책을 읽었거든. 일본말로 된 그걸 다 띠었거든, 왜냐 하면 초등학교 가서 시험을 쳐야 하니깐, 일본 가나를 다 띠었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 패망해서 갈 적에 그거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패망해서 갈 적에 그 사람들도 편안한 게 아니예요. 굉장히 배고프고 비참하게 갔으니깐. 우린 어렸어서도 그런 게 생각이 나요.

해방되서 그전엔 일본 형사들에 의해서 매일매일 감시당하던 게 없어지고, 선생님댁으로 보자면 더욱더 편해지셨을 텐데…….

윤중건 : 그렇지요. 그런 게 없고, 종교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삼일절 행사다 그러면 천도교구집에 참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시일을 보고 삼일절 행사로 만세 삼창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전엔 교구에서 별도의 삼일절 행사 같은 걸, 비밀리라도 할 수 있었나요?

윤중건 : 아이고, 못했지요. 일제 시대는. 해방되서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런 거지. 일제 시대 때는 제가 기억에 나는 건 위에서 높으신 분들이 가끔 오시잖아요. 그럼 대접도 잘하시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 벽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요만한 금고가 있는데, 열으면 드

르륵, 열으면, 백원짜리가 있고, 십원짜리가 있는데, 내가 백원짜리 하나 가지고 어렸을 적에 가게에 가면 가게 집 주인이 말이야 깜짝 놀라서 내 손을 잡고 우리집에 와서 애가 이 돈을 가지고 왔다고, 근데 아마 그 당시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돈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만주에도 집을 사 놓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수원에서 사기전을 하셨는데, 남문에서 수원의 최초의 이층집이에요. 그 당시에 사기전을 하셨을 때는 일본 놈도 돈을 내셨다니깐, 일제 시대 때,<sup>5)</sup> 아버지는 뒤에 천도교 도령들의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들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천도교에 마음을 굳히고 거기에만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가진 거는 다 쓰셨고, 그러니까 아주 고생도 많이 하신 게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나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려서부터 생계를 맡아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데, 아버님에 대한 원망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라도?

윤종건 : 근데 지금도 그렇거니와 부모가 잘못 났다거나 해서 자식이 원망하는 일은 없지, 그래도 아버지 밑창에서 배운 것이 그런 거를 보고 하는 행동을 봤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사는 데에는 도움이 된 거 같아요.

선생님, 천도교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윤종건 : 안 했어요, 나는.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면, 천도교 도를 믿으면 거짓말을 하면 안돼. 근데, 지금도 내가 장사를 해요. 나는 그림이나 예술품을 좋아해서 표구방을 하거든. 화랑을.

임승자 : 정년퇴임을 하시고 뭐 할 게 없으니깐.

윤종건 : 내가 그림을 무척 좋아해요. 예술품을. 그래서 내가 수석도 원체 좋아해서 많이 모았는데,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한 트럭은 나눠줬을 거예요. 여기가 소위 작은 박물관이에요. 근데 이제 다 처분하고 없어요.

임승자 : 하하하(웃음). 원래 박물관 하나 차릴려고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으니깐.

윤종건 : 비용이 넘 들어서, 안됐지. 그래서 애들 다 나눠주고 난 그냥 소일거

5) 윤교총은 수원교구에서 임직원에 오르는 등 본격적인 교구활동을 하기 전에 사기전을 운영했던 것 같다.

리나 하려고 했지. 근데, 천도교를 믿고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게 아주 힘들어요. 내 마음 속이 힘든데, 장사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이 힘들어요. 왜냐 하면 진실 되게 해야 사실대로 해야 하는데, 장사를 하다보니깐,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을 좀 하게 돼. 왜, 이문을 좀 남겨야 나도 가게 세도 주고 내 용돈도 써야 되는데, 어떤 땐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해야 하고, 어떤 땐 진실 되게 '이건 얼마 주고 샀으니, 얼마 주십시오, 이게 원가입니다', 하더라도 사가는 사람들이 거의 믿질 않아. '저 사람이 내게 얼마에 팔았으면, 본전이라고 말은 그렇게 해도 얼마를 남겼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교생활이 힘든 거 같아요. 종교는 맑은 마음에 올바른 정신에 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못해요.

아버님이 뭐 강요하신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윤종건 : 없어요. 근데 주위에서 그저 천도교를 대를 이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나밖에 없다 그러는데, 내가 잘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나깐.

청수 모시는 거 시집오시면서 밤 9시, 새벽 5시 그렇게 여전히 모시고 계신 거죠? 선생님께서는 쪽 얘기 들어보니까, 시어머님께 더 많은 영향을 받으신 거 같아요.

임승자 : 그럼요. 청수도 여전히 모시고, 우리 아버님이야 저 시집오는 해에 돌아갔으니깐, 내가 모실 수 없었지만,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께 많은 영향을 받았지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면, 부모님 두 분 다 강직한 성품이셨고, 그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셨던 거 같은데요. 부모님에 관련된 에피소드나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면 한 번 들려주시지요.

윤종건 : 다른 건 뭐 다 얘기한 거 같고, 우리 아버님이 편찮으셨을 때,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천도교인 중에 한 분이 제게 옛날 무덤의 관 널판을 가져다가 연기를 쏘이면 낫는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밤에 술을, 막걸리를 한 병 들고, 북어포를 해 가지고 밤 12시에 통행금지 있을 적에, 공설운동장 있잖아요. 거기가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전 날 가서 딱 봤어요. 어느 무덤이 오래 됐나, 미리 봐뒀어요. 그래 가지고 다음



날 그렇게 해 가지고 짝은 무덤을 가서 봤어요. 우리집에 같이 있던 사람이 생신장사를 해서 짐차가 있거든, 그 사람을 데려 갔지요. 가서 포에다가 막걸리를 따라서 절을 하고 '죄송합니다, 이만해서 이런 일을 하니,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술을 따라서 붓고, 무덤을 파는데, 한참을 파니깐, 뵤가 쪽쪽 올라가잖아. 소름이……. 하하하(웃음). 근데 그렇게 파고 있는데, 관 뚜껑이 나와요. 옛날에 쓴 관이라 관을 만드든 나무관이 얼마나 두꺼운 지, 그래 그걸 가지고 왔어요. 짐차에 싣고, 다시 무덤을 소복하게 하고, 술을 또 따라 붓고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나오면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절을 하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말려서 교구집에서 연기를 쏘였지요. 별일을 다 했는데. 하하하(웃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써 한번, 그 보다 더 한 것도 할텐데……. 최선을 다해 보자. 그런 저기는 있어도, 장가는 들었어도, 애들 때라 벌이도 시원찮고, 그래 약 좀 써 보려고 용 몇 첩하니깐, 그것도 돈이 없어서 남한테 꺾서, 이만원인지, 이백원인지, 남한테 꺾서 해드렸는데, 그걸 다 못 잡수시고 돌아가셨지요.

노환이셨나요?

윤종진 : 네, 노환이었지요. 그래도 이 양반이 돌아가는 날도 정해 주셨어요. 아셨어요. 생전에 내가 이제 언제 내가 죽으면 부고를 다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셨어요.

임승자 : 그때는 그믐날이면은 월정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하는…….

윤종진 : 어, 월정이라고 음력 30일이면 교구로 다 모이는데, 아버지가 29일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깐, 30일에 월정이니깐, 어차피 다 모이게 되지요.

시어머니께 들은 아버님 얘기는?

임승자 : 우리 아버님은 원래 강직하신 분이래, 대쪽같고, 무섭고……. 우리 시누님들이 노란 저고리, 빨간 치마도 못 입어 보셨고, 늘 광목에다가, 까망 물에다가, 흰 저고리 이거 아니면은 우리 아버님은 뭐, 명절 때

도 그냥 그것만 입어야 했고, 그 정도로 엄하셨대요.

윤종건 : 한국의 전통복장 아닙니까? 광목천에다가,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 이게 조선 사람이 입는 복장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늘 그렇게 입으라고……. 지금 난 뭐 자식들에게 뭐 강요하지 않지만.

임승자 : 우리 어머님도 저 시집왔을 때 천도교 믿으라고 말씀 안 하세요. 한번도 “너 왜 청수 안 모시니?” 그런 말씀도 안 하셨고, 내 스스로가 보고 어머니 하시는 걸 보고, 어머니 하시는 걸 내가 심분지일도 못하겠지만, ‘어머니 뒤를 내 평생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온 거고, 내 자식들은 지내들이 따라 주면 감사할 따름이고, 내가 강요는 안 하는 거고,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생전에 그렇게 약속을 했고…….

윤종건 : 지금도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자식들에게.

지금은 천도교가 교세가 많이 약화되고, 교인 수도 많이 줄고…….

임승자 : 줄은 정도가 아니라, 천도교라고 하면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아는 사람 보다. 뭐 경전도 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윤종건 :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종교도 하나의 흥미도 있고, 뭐 좀 취미도 되면서 뭔가 이끌리는 게 있어야 하는데, 원체 천도교 교리가 딱딱해 가지고 그런 게 어려워요. 현대적 분위기하고는 좀 어려워요.

임승자 : 현대에서는 좀 뒤떨어지는 거 같아요.

윤종건 : 그리고 벌써 내가 옛날에도 얘기를 한 거지만, 교구라고 하면은, 교구 같이 짓고, 풍금도 있고, 의자도 있고 해서, 한문이라고 하더라도 한자, 한자 풀이를 하면서 애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 천도교의 교구가 발전을 하는 건데, 당신들과 같이 나이만 들어서 당신들만 아는 거지. 후손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반들이 워낙 고집이 있어서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를 안 들어. 젊은 애가 뭘 알아, 이런 식이에요.

임승자 : 젊은 게 뭘 알아, 그런 거 보다, 여건이 안된 거예요.

윤종건 : 나부터라도 아버지와의 관계도 있고 그런데, 자식들에게는 뭐든지 해 줄려고 하면서도 교회에는 못하잖아. 왜냐하면 자식은 할망정, 여기

는 협동제인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럿이 함께 해야 하는데…….

시집오셔서 처음 교구에 가셨을 때에 젊은 사람들이 많았나요?

임승자 : 거의 없었어요. 그때도 이미, 지금 팔순 넘은 분도 있고, 그때도 나같이 젊은 사람은 없었어요.

중앙총부에 보면 청년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임승자 : 수원교구에 있어요. 거긴 젊은 사람도 많고, 어린 아이도 있어요. 권선교구는 우선 교회가 협소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젊은 사람들을 좀 이끌어 와야 한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에 주로 어디서 노셨어요?

윤종진 : 특별히 놀 시간이 없었어요. 전 주로 광교산에 나무하러 다녔고요, 억새풀도 베고, 여기서 광교산까지 꽤 먼 거리인데, 그 거리를 지게 지고 다니고, 놀 시간이 없었어요. 신문도 조·석간으로 돌리고 집에도 또 돈을 벌어야만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이거 다 먹여 살려야지. 놀 시간이 없어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여지까지 잘 살아온 게 다 부모 은덕이 아닌가 해요.

임승자 : 지금도 애들한테 그래요, “이만큼 사는 것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성이다, 그 정성이 다 어디로 가겠냐.” 그래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렇게 말해요.

윤종진 : 그후로는요, 저는 고생이라는 걸 몰랐어요. 가는 데마다 잘들 해줘서, 탄탄대로를 밟 십년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행복하게 몇 십년을 아주 잘 살았어요.

쌍둥이 낳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러면 천도교에서는 교적 같은 데에 바로 올리나요?

임승자 : 그런 게 없어요. 천도교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중앙총부에서 있는 지는 모르겠어요. 본당에 있을 지는 모르겠어요.

윤종건 : 천도교는 전도라는 게 없어요. 그걸 천도교에서는 포덕(布德) 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저 믿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는 게 다죠.

임승자 : 포덕을 해야 하는데, 자연 포덕으로 오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다니면서 누구 괴롭힌다든지, 그거 괴로움이거든요. 할머니가 믿었다던지, 할아버지가 믿었다던지,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다던지, 뭐 집안 누군가 믿었다던지 그런 후세들이 와서 하는 거지. 뭐, 새로 와서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아까 지금 이 집 터가 예전에 선경공장이라고 하셨는데…….

윤종건 : 여기 이 집 터가 일제 때 선경 공장이에요. 일본 사람이 단추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토지가 하얀 백토더라고요, 이 집을 제가 90년도인가, 이제 퇴직하고 샀어요.

임승자 : 이 동네가 다 선경 공장 터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선경주택이에요, 선경주택이라고 불러요.

천도교에서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교구장을 맡으신 거지요? 천도교에서도 여성은 많지 않죠?

임승자 : 없어요. 제가 처음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인 거 같아요.

윤종건 : 제가 알기로는 천도교에서 여성 교구장으로는 처음인 걸로 알아요.

아무튼 천도교에서 드문 일인가요?

윤종건 : 드물죠. 전부 남자들만, 도가 원체 어려워서…….

임승자 :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거절했는데, '그럼 어머니, 아버지님 도를 어쩔거냐구' 해서, 그래서 마지 못해서 대를 잇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뭐, 하하하(웃음). 여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도이지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니깐, 여성을 존중하지요. 부모님이 쪽 해오시던 거니깐, 저 역시 잘은 못해도 그 뜻을 잇는 의미에서 교구장을 맡게 됐지요.

네, 여지껏 오랜 시간에 걸쳐 선생님의 시집과 수원의 초기 천도교에 관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도교와 나의 시집이야기

채록일시 : 2002년 10월, 11월  
채록자 : 김세영